

91. 6. 27

노동부 90년 산업재해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산업안전관리공단 설립, 산재보상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달리, 90년 한해 동안 중소도시 인구만큼의 노동자가 각종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하루 6명 정도가 숨졌다.

이상 치료해야 하는 중상자는 6만5천3백36명으로 부상자는 모두 12만9천19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4배, 일본의 3배, 대만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거의가 정부의 행정 미흡, 기업주의 이윤추구에 기인해 세계최고의 '산재왕국'이란 오명까지

따른 미숙련 노동자 증가 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재와 함께 직업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직업병 환자수는 1천6백38명으로 87년 3천2백63명, 88년 2천1백50명에 비해서는 줄어든 숫자이나 89년의 1천5백61명보다는 4.93%가 증가했다.

한편 노동부의 90년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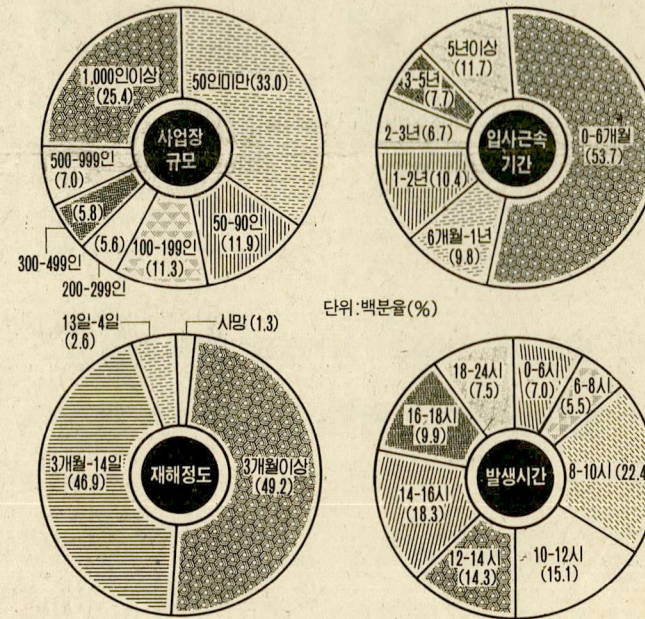
6명꼴 숨져 사건 집중발생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날씨가 더워지는 5월과 한 주 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월요일과 오전 8~10시 사이에 입사연도 2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적 원인보다는 안전교육 미비나 허술한 작업안전관리에 따른 재해가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참조〉

입사연도별 재해발생률은 입사 6개월 미만이 53.7%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는 등 2년 미

〈90년 산업재해 분석〉



만이 73.9%나 됐다.

시간별로는 오전 8~10시가 22.4%, 오후 2~4시 18.3%, 오전 10~12시 15.1%, 정오~오후 2시 14.3% 순이며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6.4%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1.8%로 여전히 산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 도시 건설, 지하철공사 등 건설물량 증대에 따른 미숙련·고령자 취업증가로 건설업이 27.9%나 돼 89년에 비

해서는 20.29%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산재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것과 함께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중화학공업과 광공업의 산업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노동부 등 행정당국도 제반 산재관련법규의 재정비와 전문기구, 행정력의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원전레이는 사건 이후 단위사업장의 노조나 노동단체들도 산재·직업병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기업평가 기준에 재해발생률이나 안전관리 실적을 포함시켜 여신관리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거나 재해발생이 적은 기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낮춰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투자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인의 인간중심 경영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노동자 보호가 곧 산재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상의 손실을 막고 기업인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인우 기자〉